

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 문제인가?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기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상임회장국민연합

2018. 3. 15.(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지역사회, 에큐메니칼 협력목회 필요”

NCCK,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 기자간담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 이하 NCCK 교육위)가 16일 낮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NCCK 교육위는 “저성장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해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에큐메니칼 협력목회의 내용과 구조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 교회중심주의와 교파 중심주의에 기반한 양적 성장 중심의 모델을 건설적으로 극복하고, 한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은 지역교회들이 상호의존성을 강화해 공동의 협력목회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은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에큐메니칼 목회론과 목회구조의 형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세미나 과정을 준비해 지역교회들을 섬기고자 한다”고 했다.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의 목표는 분명하다. NCCK 교육위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 ▶지역교회의 에큐메니칼 목회 내용과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 ▶에큐메니칼 목회론(예, 마을 목회론, 작은 교회론 등)에 대해 교육 ▶각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에큐메니칼 목회의 내용과 구조 개발 ▶각 지역 사례들을 발표해 상호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등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1단계: NCCK와 관련된 9개 지역교회협의회와 협력, 지역별 에큐메니칼 목회 세미나 개최 ▶2단계: 지역별 세미나 이후 속도 과정으로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상황에 맞는 에큐메니칼 목회내용과 구조를 창출 ▶3단계: 9개 지역교회협의회와 연합세미나를 통해 상호 배움의 장을 만들



NCCK 에큐메니칼 목회아카데미가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16일 낮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다.

고 한국교회에 에큐메니칼 목회의 방향 (NCCK 총무)가 인사 및 취지 설명을 하 고, 김영철 목사(교육위 부위원장)와 한별로 모델이 될 지역을 선정, 훈련캠프를 운영해 현장실습 제공 등이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는 이홍정 목사 조은식 기자

연세대 연신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브레인OS연구소’와 산학협력체결 조인식 예정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학장)은 오는 3월 21일 오전 11시 원두우 신학관 4층 회의실에서 브레인OS 연구소(대표 안진훈)와 산학협력체결 조인식을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향후 뇌분석 창업전문기관인 브레인OS연구소와 창업촉진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용하며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연세대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강조하는 3C, 즉 기독교 정신 (Christianity), 창의성(Creativity), 연결성(Connectivity)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원두우 신학관 지하 2층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공간인 ‘원두우 라운지’를 오픈할 계획이다. ‘원두우’는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글 이름으로, 향후 원두우 라운지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만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합신학대학원 부설기관

인 상담·코칭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심리적인 지원과 진료코칭을 받아 실제로 사회적기업 창업이 가능한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텔레프레즌스 (telepresenc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브레인OS연구소의 창업촉진 시스템은 참여자들의 뇌인지적성검사(BOSI)를 통하여 자신이 사회적기업의 창업가에 적합한 유형인지, 또는 창업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 창업가에 적합한 유형인지 찾아내어, 누구든지 창업가나 공동창업자가 되어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준다.

권수영 학장은 “암울한 시기 조선 땅에 오서서 한국의 사회혁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원두우 선교사의 흔이 깃든 역사적 공간에서 N포 세대 청년들이 또 다른 사회혁신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지속 가능한 현실로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식 기자

성결대학교에서 홍대실 권사 47주기 추모예배



성결대학교 4대 이사장이었던 “고(故) 홍대실 권사 47주기 추모예배”가 3월 15일 오후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 2층 홍대실홀에서 있었다. 홍대실 권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날은 1971년 3월 2일이다.

민중기 목사(법인이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이강준 목사(교단 총무)가 기도를 했으며, 성결대 콘서트콰이어의 특송 후에는 윤기순 목사(총회장 직무대행)가 “어떤 분이셨을까?”(마 10:4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국환 목사(교목실장)가 홍대실

권사에 대한 애력을 소개했으며, 윤동철 목사(총장)의 환영사와 김종현 목사(이사장 직무대행)의 격려사, 유족대표인 고병현 회장과 김두성 목사(증경 총회장)의 추모사가 있었고, 나세웅 목사(평의원회 의장)가 축도를 함으로 추모예배를 마쳤다.

한편 홍대실 권사는 본인은 평생 밤색 치마 희색저고리 한 벌로 생활하고 신발은 티진 고무신을 꿰매 신는 등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전 재산을 바쳐 헌신했다. 1963년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에 238평의 3층 벽돌건물을 지음으로 김용조 목사를 도와 성결대학교의 전신인 성결교신학교를 세우는 데 공헌했다.

이후 경기도 안양에 소유한 땅 22,228평을 학교 부지로 추가 기증하여 학교의 안양캠퍼스 시대를 열게 했다. 그밖에 홍



대실 권사는 평양 진지동교회, 강릉교회, 온양교회, 목호교회, 속초교회, 백은교회, 고길리교회, 대전교회 등 8곳의 교회를 단독으로 건축 봉헌하며 생전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결교회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다.

조은식 기자



연세대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행사 장면.

연세대 제공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월드비전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2. 모바일웹 mykids.wv.or.kr를 접속해보세요.

3. 월드비전 마이키즈

4. 월드비전 마이키즈

5. 월드비전 마이키즈

6. 월드비전 마이키즈

7. 월드비전 마이키즈

8. 월드비전 마이키즈

9. 월드비전 마이키즈

10. 월드비전 마이키즈

11. 월드비전 마이키즈

12. 월드비전 마이키즈

13. 월드비전 마이키즈

14. 월드비전 마이키즈

15. 월드비전 마이키즈

16. 월드비전 마이키즈

17. 월드비전 마이키즈

18. 월드비전 마이키즈

19. 월드비전 마이키즈

20. 월드비전 마이키즈

21. 월드비전 마이키즈

22. 월드비전 마이키즈

23. 월드비전 마이키즈

24. 월드비전 마이키즈

25. 월드비전 마이키즈

26. 월드비전 마이키즈

27. 월드비전 마이키즈

28. 월드비전 마이키즈

29. 월드비전 마이키즈

30. 월드비전 마이키즈

31. 월드비전 마이키즈

32. 월드비전 마이키즈

33. 월드비전 마이키즈

34. 월드비전 마이키즈

35. 월드비전 마이키즈

36. 월드비전 마이키즈

37. 월드비전 마이키즈

38. 월드비전 마이키즈

39. 월드비전 마이키즈

40. 월드비전 마이키즈

41. 월드비전 마이키즈

42. 월드비전 마이키즈

43. 월드비전 마이키즈

44. 월드비전 마이키즈

45. 월드비전 마이키즈

46. 월드비전 마이키즈

47. 월드비전 마이키즈

48. 월드비전 마이키즈

49. 월드비전 마이키즈

50. 월드비전 마이키즈

51. 월드비전 마이키즈

52. 월드비전 마이키즈

53. 월드비전 마이키즈

54. 월드비전 마이키즈

55. 월드비전 마이키즈

56. 월드비전 마이키즈

57. 월드비전 마이키즈

58. 월드비전 마이키즈

59. 월드비전 마이키즈

60. 월드비전 마이키즈

61. 월드비전 마이키즈

62. 월드비전 마이키즈

63. 월드비전 마이키즈

64. 월드비전 마이키즈

65. 월드비전 마이키즈

66. 월드비전 마이키즈

67. 월드비전 마이키즈

68. 월드비전 마이키즈

69. 월드비전 마이키즈

70. 월드비전 마이키즈

71. 월드비전 마이키즈

72. 월드비전 마이키즈

73. 월드비전 마이키즈

74. 월드비전 마이키즈

75. 월드비전 마이키즈

76. 월드비전 마이키즈

77. 월드비전 마이키즈

78. 월드비전 마이키즈

79. 월드비전 마이키즈

80. 월드비전 마이키즈

81. 월드비전 마이키즈

82. 월드비전 마이키즈

83. 월드비전 마이키즈

84. 월드비전 마이키즈

85. 월드비전 마이키즈

86. 월드비전 마이키즈

87. 월드비전 마이키즈

88. 월드비전 마이키즈

89. 월드비전 마이키즈

90. 월드비전 마이키즈

91. 월드비전 마이키즈

92. 월드비전 마이키즈

93. 월드비전 마이키즈

94. 월드비전 마이키즈

95. 월드비전 마이키즈

96. 월드비전 마이키즈

97. 월드비전 마이키즈

98. 월드비전 마이키즈

99. 월드비전 마이키즈

100. 월드비전 마이키즈

101. 월드비전 마이키즈

102. 월드비전 마이키즈

103. 월드비전 마이키즈

104. 월드비전 마이키즈

105. 월드비전 마이키즈

106. 월드비전 마이키즈

107. 월드비전 마이키즈

108. 월드비전 마이키즈

109. 월드비전 마이키즈

110. 월드비전 마이키즈

111. 월드비전 마이키즈

112. 월드비전 마이키즈

113. 월드비전 마이키즈

114. 월드비전 마이키즈

115. 월드비전 마이키즈

116. 월드비전 마이키즈

117. 월드비전 마이키즈

118. 월드비전 마이키즈

119. 월드비전 마이키즈

120. 월드비전 마이키즈

121. 월드비전 마이키즈

122. 월드비전 마이키즈

123. 월드비전 마이키즈

124. 월드비전 마이키즈

125. 월드비전 마이키즈

126. 월드비전 마이키즈

127. 월드비전 마이키즈

128. 월드비전 마이키즈

129. 월드비전 마이키즈

130. 월드비전 마이키즈

131. 월드비전 마이키즈

132. 월드비전 마이키즈

133. 월드비전 마이키즈

134. 월드비전 마이키즈

135. 월드비전 마이키즈

136. 월드비전 마이키즈

137. 월드비전 마이키즈

138. 월드비전 마이키즈

139. 월드비전 마이키즈

140. 월드비전 마이키즈

141. 월드비전 마이키즈

142. 월드비전 마이키즈

143. 월드비전 마이키즈

144. 월드비전 마이키즈

145. 월드비전 마이키즈

146. 월드비전 마이키즈

147. 월드비전 마이키즈

148. 월드비전 마이키즈

149. 월드비전 마이키즈

150. 월드비전 마이키즈

151. 월드비전 마이키즈

152. 월드비전 마이키즈

153. 월드비전 마이키즈

154. 월드비전 마이키즈

155. 월드비전 마이키즈

156. 월드비전 마이키즈

157. 월드비전 마이키즈

158. 월드비전 마이키즈

159. 월드비전 마이키즈

160. 월드비전 마이키즈

161. 월드비전 마이키즈

162. 월드비전 마이키즈

163. 월드비전 마이키즈

164. 월드비전 마이키즈

165. 월드비전 마이키즈

166. 월드비전 마이키즈

167. 월드비전 마이키즈

168. 월드비전 마이키즈

169. 월드비전 마이키즈

170. 월드비전 마이키즈

171. 월드비전 마이키즈

172. 월드비전 마이키즈

173. 월드비전 마이키즈

174. 월드비전 마이키즈

175. 월드비전 마이키즈

176. 월드비전 마이키즈

177. 월드비전 마이키즈

178. 월드비전 마이키즈

179. 월드비전 마이키즈

180. 월드비전 마이키즈

181. 월드비전 마이키즈

182. 월드비전 마이키즈

183. 월드비전 마이키즈

184. 월드비전 마이키즈

185. 월드비전 마이키즈

186. 월드비전 마이키즈

187. 월드비전 마이키즈

188. 월드비전 마이키즈

189. 월드비전 마이키즈

190. 월드비전 마이키즈

191. 월드비전 마이키즈

192. 월드비전 마이키즈

193. 월드비전 마이키즈

194. 월드비전 마이키즈

195. 월드비전 마이키즈

196. 월드비전 마이키즈

197. 월드비전 마이키즈

198. 월드비전 마이키즈

199. 월드비전 마이키즈

200. 월드비전 마이키즈

201. 월드비전 마이키즈

202. 월드비전 마이키즈

203. 월드비전 마이키즈

204. 월드비전 마이키즈

205. 월드비전 마이키즈

206. 월드비전 마이키즈

207. 월드비전 마이키즈

208. 월드비전 마이키즈

209. 월드비전 마이키즈

210. 월드비전 마이키즈

211. 월드비전 마이키즈

212. 월드비전 마이키즈

213. 월드비전 마이키즈

214. 월드비전 마이키즈

215. 월드비전 마이키즈

216. 월드비전 마이키즈

217. 월드비전 마이키즈

218. 월드비전 마이키즈

219. 월드비전 마이키즈

220. 월드비전 마이키즈

221. 월드비전 마이키즈

222. 월드비전 마이키즈

223. 월드비전 마이키즈

224. 월드비전 마이키즈

225. 월드비전 마이키즈

226. 월드비전 마이키즈

227. 월드비전 마이키즈

228. 월드비전 마이키즈

229. 월드비전 마이키즈

230. 월드비전 마이키즈

231. 월드비전 마이키즈

232. 월드비전 마이키즈

233. 월드비전 마이키즈

234. 월드비전 마이키즈

235. 월드비전 마이키즈

236. 월드비전 마이키즈

237. 월드비전 마이키즈

238. 월드비전 마이키즈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요 19:25, 20:11)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

저는 2008년 1월 13일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다음 주일부터 지난 10년 3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주로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16년 6월 19일 주일 여기 계성 나사렛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7년 6월 18일 주일 여기 두 번째로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的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마 16:21).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마 17:22,23).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죄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 9:22-24).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

는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반 십자가와 반 부활의 주범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둘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니라”(행 7:55-60).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的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살인자 사울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시고 사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편박하느냐”(행 9:4). 서울은 깜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십자가와 부활”的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편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리 행할 것을 네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행 9:5,6). 사울이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나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행 9:15,15).

사울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싸우던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진솔한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것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

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1-8).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도 살인자 사울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시고 사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편박하느냐”(행 9:4). 서울은 깜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십자가와 부활”的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편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리 행할 것을 네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행 9:5,6). 사울이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나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행 9:15,15).

그런데 사도 바울 못지 않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산 사람이나 한 사람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的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몽땅 받으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못지 않은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울처럼 죄 사람과 구원의 축복은 받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십

자가와 부활의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자칭 의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를 살펴봅니다. 그 여자는 길거리의 부도덕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만인의 멸시와 천대와 증오를 받던, 둘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의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디선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 죄인인 그 여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는 그 말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에게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범한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날낱이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저 달려갔습니다. 날 날이 다 고백하지 못한 지난 날의 숨겨진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그 밭에 걸어서 울며 눈물로 그 밭을 씹고 머리 털로 씻고 그 밭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밭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저는 둘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한 두 번 또는 일곱 번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수 없이 계속해서 더러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았습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모든 죄가 사람을 앞에 들어나는 것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멀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멸시와

정죄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자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인인 그 여자를 아주 귀중하게 보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빛 주는 사람에게 베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깊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향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향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빛 씨를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밭을 씹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밭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밭에 부었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겠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놀라면서 “회개”와 “감사”와 “사랑”的 눈물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역설적입니다. 의인들이 아닌 게 같은 죄인들에게만 일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농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교회들도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346장). 저는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일곱 귀신 들렸었고 일곱 가지 죄악의 늪에 빠졌었던 즉 인간 쓰레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와 눈물을 모두 쏟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인간 쓰레기에게 임한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부터 평생 “회개”的 눈물과 “감사”的 눈물과 “섬김”的 눈물을 쏟아 흘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의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마 9:12,13).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랑 안에서 윙노릇 한 것 같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윙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하려 합아니라”(롬 5:20,21).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주님 사랑과 주님 증거와 주님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뉴 8:1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 두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1-3). 막달라 마리아는 죄 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후 몸과 마음과 눈물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몸과 마음과 눈물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불신당의 귀신, 교만의 귀신, 위선의 귀신, 탐욕의 귀신, 정욕의 귀신, 계으름의 귀신, 불순종의 귀신 등에서 구원함을 받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눈물과 물질과 정성과 생명을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쟁여 섬기던 여인들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쟁여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

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막 15:44,4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 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옹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속이시고 영혼이 들어가시니라”(요 19:25-30).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한 마디 한 마디 들으면서 회개와 슬픔과 아픔과 감사와 눈물을 쏟고 또 쏟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① “아버지여 저 흙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②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③ “여자여 보소서 아들들이나 보라 네 어머니라.” ④ “엘리엘리 라마사바단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⑤ “내가 목마르다.” ⑥ “다 이루었다.” ⑦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부터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들 하나 하나를 자기 몸과 자기 머리와 자기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은 눈물로 생생하게 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만 막달라 마리아만큼 십자가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사랑에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렸고 부

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매우 일찍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의 위험도 몸의 고통함도 새벽 잠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서 잡자고 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일찍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슬과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요 20:11), 바로 그 때였습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마 28:6).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아가 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이는 선생님이라)”(요 20:16).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라고 자기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반가웠고 너무나 황홀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불 väl었으려고 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증인”的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요 20:17).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부터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아만 막달라 마리아만큼 십자가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복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라”(요 20:18).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막달라 마리아가 수행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모두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20:19절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요 20:19). 막달라 마리아의 생생한 부활의 증언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쌓여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서글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명 제자들에게 천하 나타나서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명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내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11). 그 자리에 있지 않던 도마는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우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요 20:24,25). 주님의 자자들이 이와 같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던 때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뵈었고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고 뜨겁게 전할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의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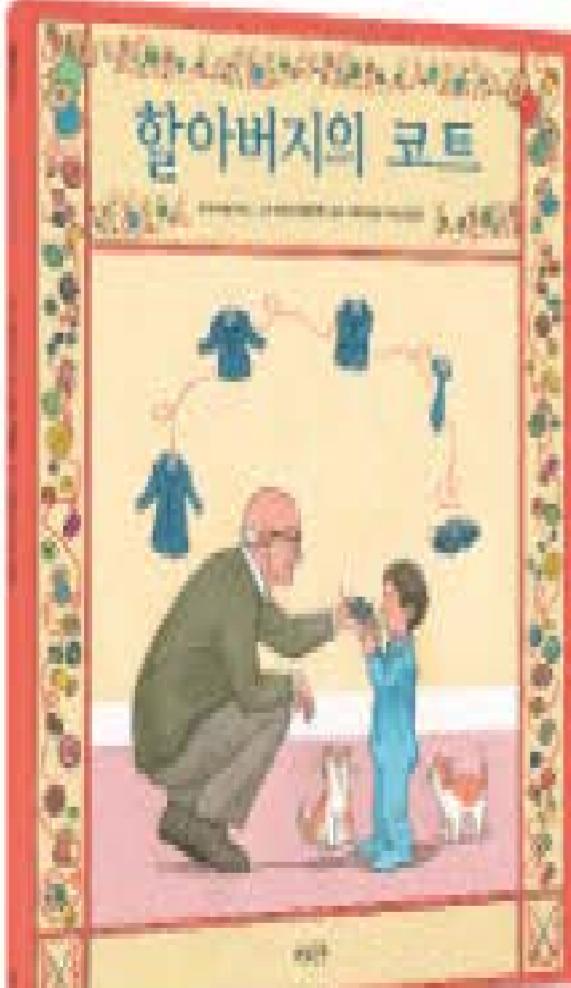
부활의 아침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격과 가장 큰 기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신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고 바로 막달라 마

리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토록 만나는 사람마다 두 가지 사건을 눈물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부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를 이었고 폴리칼 감독님과 토마스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그 뒤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회개와 슬픔과 아픔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흘렸고, 무덤에 찾아고 소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 산 제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님 내 주님께.” 스데반 집사님처럼 폴리칼 감독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성봉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들의 삶과 소유와 생명을 향기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던 “회개”的 눈물과 “감사”的 눈물과 “사랑”的 눈물과 “섬김”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회와 교회가 보고 싶어하는 것도 순수하고 뜨거운 “회개”的 눈물과 “감사”的 눈물과 “사랑”的 눈물과 “섬김”的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짐해봅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온갖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십자가의 주님 옆에 가까이 서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 옆에 가까이 서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죄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죄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변화되고 사회와 민족이 변화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닮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와 눈물을 주님께 쏟아서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 산 제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님 내 주님께.” 스데반 집사님처럼 폴리칼 감독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성봉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들의 삶과 소유와 생명을 향기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던 “회개”的 눈물과 “감사”的 눈물과 “사랑”的 눈물과 “섬김”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은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증거하면서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들이 조금이라고 아주 조금이라도 되게 하시옵소서!”

영사과 함께 하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리아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점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 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치명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도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고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 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아침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이 되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친밀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국 디자이너·보시기 마티스르 미호재

글작이일스튜디오 | 그림: 배우경 예술가 | 출판: 이서재 | ISBN 978-89-549-1600-0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토시 문화 02-704-7059